



박 창 근
(환경교육회 회장)

미국을 키우는 환경보호

=15일의 단상=

(1)

미국 사람들의 애국심은 상징적이기 보다, 현실적입니다.

즉, 내가 어떤일을 하고, 어떤일을 하지 말아야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 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형성하는 미국의 공기와 미국의 물, 그리고 땅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으로 미국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보호를 어떤 감상적인 구호나, 행사의 한 형식으로 보지 않고, 나라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행동으로 평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 받아야 할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

처음 미국을 건국할 당시—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 충족되었습니다.

즉,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영국에서 선생님을 초빙해 왔고, 불을 끄기 위해 독일에서 소방수를 데려오는 등 그렇게 미국을 건국한 미국 사람들은

직업의식이 강합니다.

특히, 자연을 보호, 환경을 감시하는 직업적인 전문가는 나라를 직접 보호하는 직업인으로 평가해 군인과 같은 예우로 대접합니다.

우리도 환경보호를 단 하나뿐인 조국을 지키는 파수의 시각에서 평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3)

미국사람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꽃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꽃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꽃을 사서 집안을 장식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야생의 꽃을 꽃중의 꽃으로 평가해 귀하게 여기지만, 누구하나 야생의 꽃을 꺾어 집안을 장식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야생의 꽃은 야생에 있으므로 하여 그 생명력이 발휘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산과 들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 꽃을 한아름 꺾어오는 우리네의 잘못을 반성해야 하였습니다.

〈4〉

미국의 모든 강과 바닷가에는 강과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경고판은 자본주의 나라답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행위를 할 때는 최하 500달러에서부터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돈으로 35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인데요, 엄청난 벌금액수를 제시함으로써, 오염을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우리도 벌금액수를 현실화시켜, 경고적인 차원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차원으로 강과 바다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5〉

미국 피츠버그의 시간사용관리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일생동안 5년간을 줄 서는데 보내며, 신호대기에서 6개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질서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매사에 기다릴 줄 아는 미국사람들은, 환경보호라는 장기적인 대책에서도 결코, 서두르는법 없이 한단계 한단계씩 일을 정성껏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6〉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역사가 무척 짧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은 역사와 반비례해 우리보다 강하고, 확실합니다.

특히, 직업적인 측면의 긍지는 대단해, 거리의 청소원들조차 자신의 일이 사회와 국가를 위한 대단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직업의식은 아직도, 노동을 천한일로 간주하는 나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치우는 일을, 사회와 국가를 위한 봉사로 느낄때 비로소 우리의 주위는 깨끗하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7〉

미국은 자원의 부국입니다

특히, 산림자원은 면적당 세계 3위로 풍부한 목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놀라운 것은, 미국의 가구 대부분은 순수한 목재로 만든것 보다는, 톱밥 등을 특수하게 의여서 만든 대용 목재로 된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 종이로 조립해 쓰는 설합장, 정리장들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에 비해 산림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비싼 원목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고급 가구로 만들어 쓰는 우리의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8〉

미국의 자동차 기름값은 우리보다 약 3분의 2가 싸입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는 보통휘발유와 무연휘발유, 그리고 고급휘발유를 구분해서 팔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값싼 휘발유보다, 조금 비싼 무연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연휘발유를 쓰면 당장은 몇 달러 돈이 더 들지만, 공기가 그만큼 깨끗해지면 청소비와 세탁비가 절감되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휘발유값 몇 달러 아끼는 값에 비교하겠느냐고 묻습니다—부러운 시민의식입니다.

〈9〉

일주일에 닷새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 미국의 직장에서는 철저한 에너지 절약책을 쓰고 있습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이나 숙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철저한 컴퓨터시스템으로 방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은 당직자 서너명 근무시키는 비용의 3배가 들지만, 애써 당직자 대신 더 비싼 비용쪽을 선택하는 것은 컴퓨터 비용은 회사의 것이지만, 당직자가 출근함으로써 사용해야 되는 엘리베이터등의 전기료, 물사용 등은 국가자원의 소비

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부러운 의식입니다.

〈10〉

미국에서는 거리의 쓰레기통을 뒤져, 빈병이나 빈 맥주강통을 줍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줍는 사람은 돈으로 그것을 환산해 쓰겠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큰 슈퍼마켓에 설치되어 있는 빈 강통 투입계산기에는, 주어진 강통을 그곳에 넣어 돈을 보상받는 사람이 많고, 또한 그것을 부러움과 존경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앞서가는 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1〉

미국의 공장지대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구획으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장엔 자체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구획 단위별로도 공해방지 대책기구가 있습니다.

즉, 각 공장마다 공해방지에 힘쓰고 있는지? 또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더욱 효과적인지를 감시하고,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도 그런 합리적인 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

미국은 여론의 나라답게, 정상이 아닌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면 나라안이 온통 발각 뒤집어 집니다. 최근, 뉴욕 근교의 바다에서 병원쓰레기가 떠다니는 사건이 벌어지자 뉴욕 뿐 아니라 온 나라안이 시끄러워지고, 바다는 금새 폐쇄되었습니다. 정상이 아닌 일은 공해입니다. 공적(公的)인 해는 모든 국민과 나라가 막아야 되는 국가적 피해입니다.

<13>

어느 나라나 도시의 대중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야, 그 도시의 공기가 맑아집니다. 말하자면, 자동차가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면, 자동차를 최소화 하는 길이 배기가스를 줄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은 구간 구별없이 1달러짜리 토큰으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이 토큰은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에나 통용됨으로써, 요금 합리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그 이용자가 쉽고, 편해야 많이 이용하게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14>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쓰레기는 하루건너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가 오는 날, 큰

비닐쓰레기 봉지에 넣어 길가에 두어 수거하도록 합니다.

물론, 분리 수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쉽게 돈이 되는 알미늄 빈 깡통이외에는 거의가 한자루에 넣어 버려지게 됩니다.

청소차는 이것을 신자마자 압축시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를 완전히 과학적으로 소각시켜 버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뒷말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의 합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쓰레기 수거, 처리도 보다 과학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15>

부자나라 미국에는 의외로 중고품 상점이 많습니다.

가구는 물론, 옷가지에 이르기까지 헌가구, 헌옷이 상품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요. 이는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미국 사람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다 쓰는 우리로서는 너무 지나치게 새것만 선호해, 얼마쓰지도 않은 가구와 옷가지를 그대로 쓰레기화 해버립니다.

쓸수 있는 물건은, 끝까지 쓰는 실용적인 생활태도를 가져야 생산과 폐기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